

## 코비와 함께 하는 어린이 과학관

<http://www.koreavisuals.com/cyberseum/wwwroot/science/index.html>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플래시를 이용해 만화처럼 구성된 인터넷 어린이 과학관이다. 코비라는 사이버 캐릭터와 함께 어린이 과학관으로 떠나보자.

이 곳은 크게 여섯마당으로 분류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코너는 '코비의 실험실'이다. 다양한 실험을 플래시로 보여주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한참을 생각해야 이해되는 일반적인 지식정보와 달리 그림으로 직접 보고 바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구석구석 생활과학'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어떤 원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놓은

마당이다. 한 가정의 집을 모델로 부엌에서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등이, 거실에서는 에어컨, 필기도구, 전자계산기 등이, 침실에서는 노트북, 텔레비전, 시계 등이, 화장실에서는 변기, 온수기, 세면대 등이, 그리고 옥상에는 실외수영장과 위성안테나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

이외에도 '으쌔으쌔 힘의 마음'에서는 힘과 관련된 물리학적 특성과 원리를 소개한다. '시끌벅적 소리나라'는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지는지, 그리고 악기나 도구마다 소리가 다르게 나는 현상을 직접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물체를 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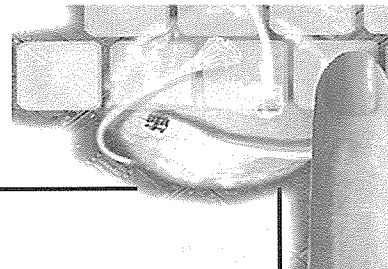
로 선택하면 담긴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

'번쩍번쩍 빛의 세계'에서는 눈을 통해서 빛을 본다는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빛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코비의 공부방'에서는 열과 에너지, 분자운동,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내용들은 '구석구석 생활과학', '코비의 실험실' 등 이미 앞에서 제시된 코너에도 부분부분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사이트맵 주소가 잘못 설정돼 있어 한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소창에 다음과 같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어린이 과학관의 알찬 정보가 정리된 사이트맵을 볼 수 있다. <http://www.koreavisuals.com/cyberseum/wwwroot/science/map/map.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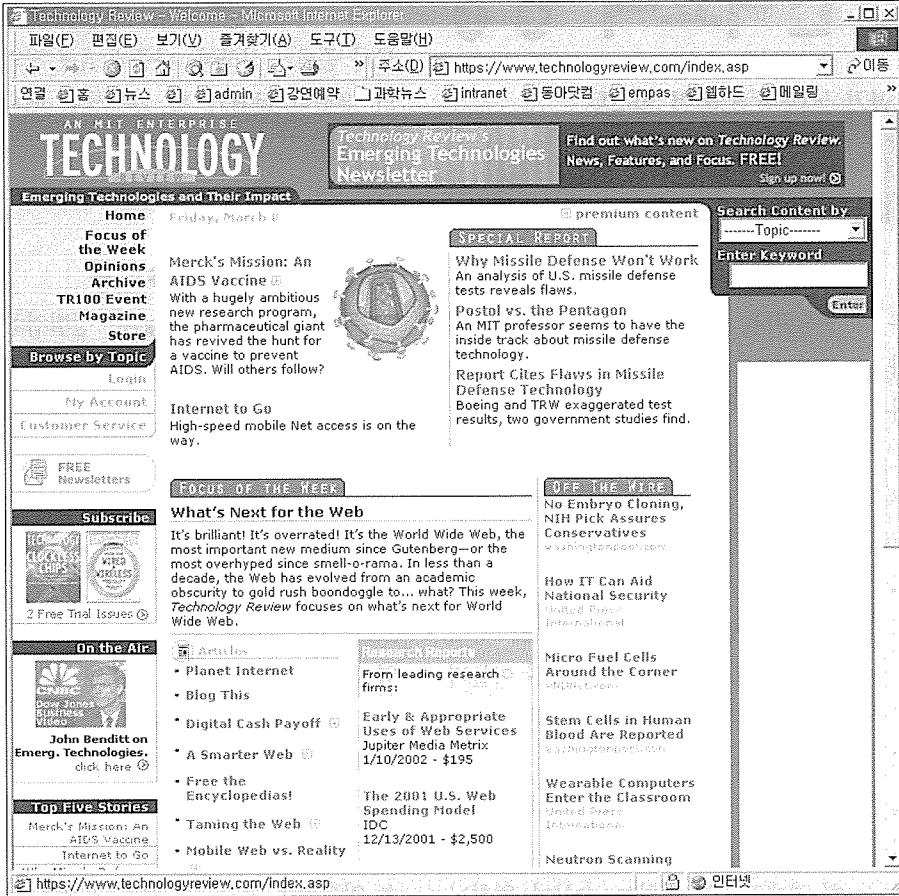
이 사이트맵을 출력해 아이나 조카들과 함께 과학관에 등록돼 있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하나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러나 각 코너 윗편에 놓여진 홈과 사이트맵과 같이 중요한 링크주소가 잘못돼 있고 플래시와 같은 그림을 이용해 아이들이 과학을 더 쉽게 재미있게 익히게 하려는 의도에 비해 글이 너무 많은게 흠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그림으로 처리해 글을 최소화한다면 정말 좋은 사이버 어린이 과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MIT의 최신기술잡지 테크리뷰

http://www.techreview.com/



무료 뉴스레터에 가입하면 주간단위로 새로운 소식이 메일로 제공된다. 메일은 인포테크, 바이오테크, 나노테크와 기타 분야로 나눠 각각 한두기사만을 소개하며, 제목과 한두줄 정도의 간략한 설명이 전부여서 본문을 보려면 테크리뷰 사이트로 연결된 링크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메일이 단순 명료해 바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다.

이 곳은 회원제 사이트로 회원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료화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콘텐츠가 유료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회원 가입을 하면 2개의 무료 견본 이슈를 볼 수 있으며, 최근부터 지난 5

지놈프로젝트를 통해 생물학 분야가 떠오르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생물학에 컴퓨터공학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 것일까? 또 생물학에 공학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 등에 대해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궁금한 부분일 것이다.

'생물학자에게 공학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인터뷰한 테크리뷰 2월호 기사는 이런 면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테크리뷰는 MIT에서 발행하는 현재의 최첨단 분야와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기술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예측을 내놓고 있는 잡지다. 오프라인으로도 발간되고 있다.

년까지의 이슈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곳에만 있는 TR(테크리뷰)스코어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첨단 기술에 관심있다면 테크리뷰 무료 메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①

朴應緒 (동아시아언스 기자)